

# 2017년 제48회 일본 총선거 정당시스템의 변화

이이범 \_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 — 목 차 —

- I. 문제제기 : 제48회 총선 전의 상황
- II. 분석시각
- III. 총선결과의 분석
- IV.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과 정당시스템의 변화
- V. 무당파층의 정당선택 변화
- VI. 결론

### 국문초록

2017년 제48회 일본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압승했다. 그 주요 원인은 반 자민 성향의 야권이 분열하고 투표자들이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과 자민당의 정권운영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선거직전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민당 의석수의 하락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투표자들이 아베 노믹스를 포함한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자민당 의석수는 하락하지 않았다. 아베 수상이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정권의 정책능력과 정권운영능력은 매우 크게 커져 과거 자민당의 부정적인 특징은 찾기 어렵게 되었다. 자민당지지율이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에 야당들의 지지율은 평소 10%를 밑돌고 있고, 반 자민-야당에 대한 무당파 투표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자민당의 일당우위시스템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일본총선, 자민당, 아베노믹스, 일본정당시스템, 일본정치

.....

## I . 문제제기 : 제48회 총선 전의 상황

2017년 10월 23일 실시된 제48회 일본의 중의원선거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수상의 전략적인 중의원해산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12월 실시되었던 제47회 총선 당선자들의 잔여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았고, 더구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점유율이 68.3%에 달해 서둘러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염두에 둔 ‘국난돌파해산’이라는 명분으로 중의원의 해산을 강행했다. 그러나 9월 28일 중의원을 해산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가장 급박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그래서 아베 수상의 중의원해산에 대해 일반 유권자들의 다수는 부정적이었다.

아베 수상은 중의원의 조기 해산이 북한의 핵위협과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반응을 고려하면 무리수일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수상은 국내의 정치적인 속셈에 따라 과감하게 전략적인 해산을 선택했다. 사실 국내 정치상 아베 수상의 입지는 2017년 7월 말까지만 해도 매우 곤혹스러웠다. 2017년 3월까지만 해도 5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모리토모학원문제<sup>1)</sup>(森友学園問題)와 가케가쿠엔학

---

1)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불하받은 것이 드러나고 그 배경에 아베 수

원문제<sup>2)</sup>(加計学園問題)가 연이어 대두되면서 7월의 내각지지율은 30%대 후반까지 급락했다. 아베 수상의 이러한 2건의 스캔들은, 자민당이 7월 실시된 동경도의회의원선거에서 고이케(小池百合子)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都民ファーストの会)에 크게 패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금년 7월까지만 해도 아베 수상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거듭되면서 아베 수상의 내각 지지율은 8월과 9월에 이르러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이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이 어렵게 상승하는 국면이면서 야당이 분열하는 상황을 맞이한 아베 수상과 자민당에게 조기 총선은 아베 수상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권의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을 것이다.

한편 제1 야당인 민진당은 2017년 7월 동경도의회의원선거에서 참패하여 민진당의 진로에 불확실성이 높아져갔다. 민진당은 9월부터 마에하라(前原誠司)를 당대표로 새롭게 선출하고 신 집행부를 출범시켰지만, 당내 분열이 발생하면서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탈당한 의원들은 중의원해산의 움직임이 보도되자 동경도의회의원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고이케 도지사가 새롭게 창당한 희망의당(希望の党)으로 몰렸다. 급기야 마에하라 민진당대표는 중의원해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 자민의 기치를 세운 희망의당과의 합류를 모색했다. 이처럼 제1야당이 분열하고 희망의당과의 통합움직임이 나타나자, 아베 수상은 서둘러 9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23일 총선실시를 예고했다. 아베 수상은 내각지지율이 회복되고 야당이 분열한 상황에서 총선을 조기에 실시한다면 자민-공명 여당의 의석수는 무난히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

상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도된 사건.

- 2) 가케가쿠엔학원이 2017년 1월 수의학부개설을 승인받은 것이 학원이사장과 친구사이인 아베 수상의 특혜에 의한 것이라고 5월부터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베 수상의 스캔들로 대두된 사건.

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라면 아베정권은 향후 4년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9월 28일 중의원이 해산되자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의원총회에서 희망의당과의 합류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희망의당과의 합류를 거부한 일부 중의원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았고, 에다노(枝野幸男) 의원을 중심으로 한 리버럴 성향의 의원들은 10월 2일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을 창당했다. 결국 제48회 중의원의원선거는 아베 수상이 중의원을 조기 해산한 의도대로 제1야당이 희망의당, 무소속, 입헌민주당으로 삼분열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여기에 공산당과 리버럴 성향의 입헌민주당과의 선거협력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반 자민-반 아베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반 자민-반 아베 정치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주목받았던 희망의당(希望の黨)은 고이케 대표의 실언과 정당운영의 혼선 등으로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었다.<sup>3)</sup>

아베 수상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야권이 분열하고 혼란한 틈에서 여유있고 냉정하게 자신의 정책성과와 국난극복의 공약들을 설파하는 데 집중했다. 2013년부터 실행해온 '아베노믹스'의 성과들을 자신 있게 홍보했다. 비록 내각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지만 자민당지지율은 3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sup>4)</sup> 또한 아베 내각이 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정

3) 고이케 대표는 희망의당으로 합류하기를 희망하는 민진당 의원들 가운데 정책노선에서 합치하는 의원들만 선별해 공천하겠다고 발언해 반 자민 세력의 통합을 기대했던 유권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고이케 대표 스스로 총선에 불출마함으로써 수상지명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되어 정당운영능력에 큰 의혹이 제기되었고, 집권의지 또한 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정당지지율은 점차 하락했다.

4) 2000년대 들어 NHK정치적식일례조사에 나타난 자민당지지율을 보면 40%를 넘긴 시기는 고이즈미 수상의 집권 후반기(2005년 하반기)와 현 아베 내각의 2013-14년시기, 2015-16년 일부 기간에 국한된다.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의 비율이 자민당지지율보다 높은 기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평소 자민당지지

권운영에 대한 보수적인 유권자층의 지지는 견고했다. 결국 선거정국은 아베 수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자민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자민-공명 양당의 압승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 II . 분석시각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총선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결정요인은 다음의 4가지였다. 즉 내각지지율, 정당지지율, 정책이슈 내지 스캔들, 그리고 무당파 투표자의 정당선택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원내각제를 운영하는 일본의 국정선거에서 내각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은 언제나 선거결과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내각지지율은 현직 내각의 국정운영능력과 정책능력의 평가 잣대이다. 정당지지율 역시 집권당의 정권담당능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과거의 일본선거를 보면, 소비세율인상이나 우정민영화와 같이 돌출하는 정책이슈나 정치자금비리나 뇌물사건과 같은 스캔들이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본 선거의 결과에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이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과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이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에 대한 투표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당파층 비율의 변화이다. 일본정치에서 무당파층의 증가는 내각과 기존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크게 증가하여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무당파층이 증가

---

율은 제1당이면서도 30%대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수준은 집권당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민당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다면 향후 국정선거에서 자민당득표율 내지 의석수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당내에서 현직 내각의 퇴진이나 교체 압력이 높아진다.

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당일 무당파층의 표심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무당파층의 표심은 비자민당 계열의 제1야당이 선거에서 득표율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무당파층의 정당선택이 아베 수상의 재집권기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4가지 요인들이 각 정당의 의식결정에 각각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번의 총선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내각지지율과 정당지지율, 무당파층의 비율은 NHK가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정치의식월례조사(政治意識月例調査)’<sup>5)</sup>와 요미우리신문의 ‘전국전화 여론조사(電話全国世論調査)’<sup>6)</sup>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정책이슈에 관련한 유권자들의 지지성향은 일본경제신문이 정례적으로 월별로 조사하는 ‘일정정례전화 여론조사(日経定例電話世論調査)’<sup>7)</sup>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 여론조사의 내용에는 조사 시점의 내각지지율과 각 정당별지지율과 함께 주요 정책 내지 이슈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지지여부를 묻는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조사 결과에 나타난 내각지지율과 각 정당별지지율, 그리고 여러 정책성향의 항목들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연동관계를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각지지율, 정당지지율, 정책지지성향과의 연동성을 분석한 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자민당의석수의 압도적 우위를 설명하고자 한다.<sup>8)</sup>

5) NHK放送文化研究所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http://www.nhk.or.jp/bunken/index.html>).

6) <http://www.yomiuri.co.jp/feature/opinion/koumoku/?from=yconv2> (검색일: 2017년 11월 3일).

7)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검색일: 2017년 11월 3일).

8) 그리고 이번 총선결과를 실증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투표자 개인별 서버이데이

### Ⅲ. 총선결과의 분석

자민-공명 집권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의 선거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자민당은 전체의석 465석 가운데 284석을 획득했고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도 29석을 확보해 양당의 의석점유율은 67.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선거초기 민진당을 흡수하고 제1야당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고이케 동경도지사의 희망의당은 선거기간동안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선거전 의석수보다 낮은 50석을 획득하는 데 머물렀다. 반면에 입헌민주당은 중의원해산 직후 창당했음에도 선전해 55석을 획득해 제1야당이 되었다. 입헌민주당의 선전은 정당의 기본노선을 반 아베로 분명히 함으로써 반 자민-반 아베 성향을 지닌 투표자들의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 정파별 당선자 현황

정파명	당선자			선거구		전현직구분		
	선거 전	금번 선거	점유율%	소선거구	비례대표	前	元	新
자민	284	284	61.08	218	66	259	5	19
공명	34	29	6.24	8	21	27	0	2
희망	57	50	10.75	18	32	31	10	9
공산	21	12	2.58	1	11	12	0	0
입헌민주	15	55	11.83	18	37	16	16	23
공산	14	11	2.37	3	8	8	1	2
사민	2	2	0.43	1	1	2	0	0
고쿄로	0	0	0.00	-	0	0	0	0
무소속	38	22	4.73	22	-	21	0	1
계	465	465	100.00	289	176	376	32	56

\*자민당 당선자에는 선거직후 추가 공인된 3명의 의원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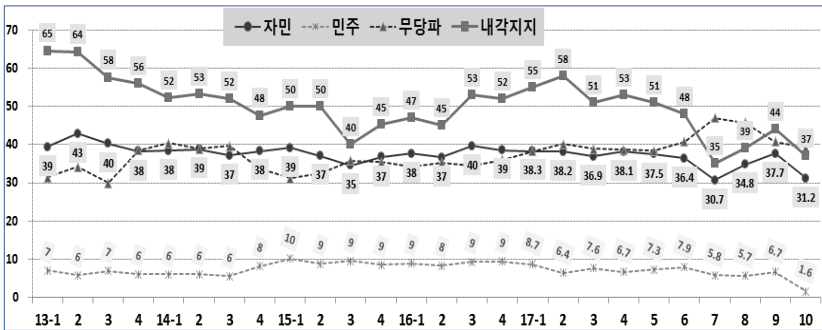
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시점까지 NHK,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에서 월별로 각각 조사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NHK의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집계 데이터를 일부 인용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를 앞서 기술한 내각지지율, 정당지지율, 정책이슈, 무당파비율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 1. 내각지지율의 분석

먼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NHK의 ‘정치식설례조사’ 자료를 통해 보면, 2017년 5월까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모리토 모학원문제(森友学園問題)와 가케가쿠엔학원문제(加計学園問題)가 크게 불거진 7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선거운동이 본격 전개된 10월 중순 경의 내각지지율은 37%까지 하락했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3%까지 상승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았을 때 이처럼 내각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선거일을 맞이한다면, 집권당의 의석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2014년 총선 때와 같이 자민당의 압승이 그대로 재현되

〈그림 1〉 아베 수상의 재집권 이후 내각·자민·민주(민진) 지지율과 무당파 비율의 추이<sup>9)</sup>



\* 민진당은 2016년 3월 27일 결성되어 4월 조사부터 반영됨

9) 2013~2016년 수치는 NHK의 정치식설례조사결과를 분기별로 평균하여 작성한 값이며, 2017년 수치는 월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었다. 선거기간 동안인 10월에 있었던 내각지지율의 급락이 자민당의 의석수 변화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재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 2. 정당지지율

자민당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중의원해산 직전인 2017년 9월 조사에서도 37.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0월 중순 선거기간 동안 실시된 조사에서는 31%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동일한 이유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지지율의 하락만으로 보면 역시 자민당의 당선의석수는 중의원해산 전의 의석수보다 적지않게 감소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 야당들의 정당지지율이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야당 가운데는 희망의당이 가장 높아 4.8%, 그 다음으로 입헌민주당이 4.4% 수준이었다. 자민당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주요 야당들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야당들의 부진이 자민당의의석수의 하락을 막았던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다. NHK출구조사결과를 보면 자민당지지율은 42%이었고,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은 각각 8%와 6%였다. 그리고 무당파비율은 27%였다. 자민당을 포함한 주요 야당들의 지지율 분포는 2014년 총선 때의 출구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11)</sup>

2000년대 들어 구 민주당이 성장해가던 시기에는, 집권 자민당과 내

---

10) 선거 직후인 10월 25일 요미우리신문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각지지율은 전월의 41%에서 52%로 상승했고, 부지지비율은 46%에서 37%로 감소했다. <http://www.yomiuri.co.jp/feature/opinion/koumoku/20171025-OYT8T50047.html> (검색일: 2017년 10월 25일).

11) 2014년 NHK의 총선출구조사에서 자민당과 구 민주당의 지지율은 42%와 15%였고 무당파는 24%였다. [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 (검색일: 2017년 11월 1일).

각지지가율이 크게 하락하면 구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대로 상승하곤 했다. 즉 집권 자민당과 내각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대로 연동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반 자민 성향의 야당지지율과 연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베노믹스 정책이 본격 실시된 2013년 3분기부터는 자민당지지율과 무당파비율 간에는 상호 연동성이 높아졌다. 즉 자민당지지율의 증가는 무당파층의 감소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아베 수상이 재집권하고 아베노믹스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자민당지지율이 증가하고 무당파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무당파층의 비율

앞서 기술했듯이,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무당파층 비율은 자민당지지율의 추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즉 자민당지지율이 상승하면 동시에 무당파층 비율은 하락했고, 반대로 자민당지지율이 하락하면 무당파층의 비율은 상승했다. 즉 자민당지지자에서 이탈한 유권자는 무당파층이 되지만 곧 바로 야당지지자로는 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의 정당시스템이 크게 요동쳤던 1990년대부터 나타난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반 자민 성향이 뚜렷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또한 야당지지에서 이탈하면 곧 바로 자민당지지자로 선회하지 않고 무당파로 남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sup>12)</sup> 또한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무당파층 가운데는 기존 정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 강하고 개혁지향적인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자민당내각이 개혁지향적일 경우에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무당파의 비율이 증가하기도 했다.<sup>13)</sup>

12) 三宅一郎, 『政党支持の構造』, 木鐸社, 1998, 4~5쪽; 蒲島邦夫, 『政権交代と有権者の態度変化』, 木鐸社, 1998, 110~111쪽.

13) 読売新聞東京本社世論調査部編著, 『二大政党時代のあけぼの—平成の政治と選挙』,

2017년 7~8월에 들어서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무당파층의 비율 역시 증가했다. 이번 NHK출구조사에서 확인된 27%의 무당파층 비율은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국정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무당파층의 비율이 약간 증가한 영향이었는지, 이번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무당파투표자 가운데 30%가 입헌민주당을 지지했다. 그 다음은 자민당 22%, 희망의당 21% 순이었다. 즉 이번 선거에서 무당파층 투표자의 50% 이상이 반 자민 성향의 야당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2000년대 들어 구 민주당을 강력한 제1야당으로 성장시켜온 가장 큰 동력은 무당파층의 압도적인 지지였다. 이 시기에 실시된 국정선거에서 구 민주당은 평소에는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렀으면서도 무당파투표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득표율은 20-30%대를 넘나들었다(표 2 참조). 특히 2009년 총선에서 구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도 무당파층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무당파층의 50%전후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표 2〉 2000년대 비례대표선거에 나타난 무당파 투표자의 정당선택

구분	03 총선	04 참의원	05 총선	07 참의원	09 총선	10 참의원	12 총선	13 참의원	14 총선	16 참의원	17 총선
자민지지율	40	33	41	38	30.6	27	25.1	42	42	41	42
민주지지율	20	23	20	27	26.1	35	12.9	12	15	16(민진)	8(입헌)
무당파비율	18	23	21	21	29.9	21	32.9	21	24	24	27
무당파 민주당지지	55	49	37	51	54.0	30	16.3	14	21	27(민진)	30(입헌)
무당파 자민지지	23	15	33	14	16.4	16	20.7	25	23	26	22
조사기관	아사히	마이 니치	아사히	아사히	시사 통신	아사히	시사 통신	NHK	NHK	NHK	NHK

\*선거일 다음날 해당 언론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자료를 각각 인용함

木鐸社, 2004, 162~164쪽.

14) [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 (검색일: 2017년 11월 1일).

그런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 총선 이후 무당파층의 정당선택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12년 이후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의 비례대표선거에서 구 민주당 내지 민진당에 대한 무당파층의 압도적인 지지는 사라졌다. 2012년과 2014년 총선과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무당파층의 정당지지율은 구 민주당 내지 민진당보다 자민당이 높았다. 2012년 총선부터 무당파층의 반 자민 성향은 약화되었고, 무당파층의 자민당지지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수상의 2차 집권기에서는 무당파층의 제1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성향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sup>15)</sup> 그리고 2013년 참의원선거 이후 투표자들의 자민당지지율이 안정적으로 40%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 4. 정책이슈

이번 선거기간 동안 언론의 보도내용에서 정책이슈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부각되지 못했다.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의 주된 관심사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야권의 분열이었다. 민진당의 해체와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의 움직임은 언론기관의 주요기사가 되었다. 특히 자민-공명 양당의 압도적인 우세를 견제할 만한 야당 세력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높았다. 그 결과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언론기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엷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수상은 10월 10일 선거가 공고되고 선거운동이 본격 실시되자, 유세장에서 자신의 주요 정책과 업적을 부각시켜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이 강조하는 주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늘리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선거기간 동안 아베 수상이 역설한 내

15) 무당파층은 자민·민주(민진, 입헌민주) 이외에도 2012 총선에서 일본유신회 24.1%, 2014총선에서 유신의 당이 23%, 2017 총선에서 희망의당 21%씩 각각 높게 지지했다.

용의 핵심은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성과였다. 총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이룩한 일본 GDP의 증가, 디플레이션의 탈출, 기업 사내유보금의 증가, 수출증가, 고용환경의 개선 등을 강조했다. 둘째,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안보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대북한 강경정책, 군비태세의 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등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셋째, 2019년 10월 10%로 인상할 예정인 소비세 증세<sup>16)</sup>의 재원을 재정재건보다는 자녀양육 및 고등교육의 무상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정책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다수는 지지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비율은 50%에 가까웠다.<sup>17)</sup>

아베 수상이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에서 강조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아베 수상의 재집권 기간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호의적인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자비율보다 대부분 높았다. 이번 총선에서 반 자민 성향의 야당들의 의석수가 증가하려면, 아베 내각의 실정이 크게 부각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아베 내각과 자민당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

16) 소비세율의 10% 인상안은 2012년 6월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 자민, 공명의 3당이 「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안에 합의하면서 당시 5%에서 단계적으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2014년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하면서,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2014년 12월 총선을 실시했다. 그리고 또 아베 수상은 2016년 6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10% 인상안을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17) 2013년부터 요리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지속적으로 포함시켜오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실시된 47개월분의 조사결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을 집계해서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그 값은 49.6%였다(<http://www.yomiuri.co.jp/feature/opinion/koumoku/?from=ycnav2>: 2017년 10월 28일 검색).

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의석수가 유지된 것에는 아베 내각의 정책추진능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의석수가 전체 의석의 60%를 초과한 것에는 앞서 설명한 4가지 요인 이외에 다음의 2가지가 추가로 기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제1야당이었던 민진당의 분열과 해체이다. 희망의당이 창당되기도 했지만 반 자민 성향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해체되어 3그룹으로 분열한 것은, 소선거구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도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제1당의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반 자민 성향의 야권이 분열하면서 기존의 정당조직이 튼실한 자민당은 289 소선거구 가운데 277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해 215명을 당선시켰다. 공명당의 소선거구 당선자 8명까지를 포함하면 223명을 당선시켜 소선거구 정원의 77.1%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의석점유율 합계가 49.3%였다는 것을 보면, 소선거구에서 제1당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 IV.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과 정당시스템의 변화

앞선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부터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지지율은 4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들의 지지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정당지지율의 격차를 보면, 일본의 정당구도는 자민당 일당우위시스템이 굳어져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정치구도에서 보았을 때 2013년부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제1야당의 초라한 지지율은 향후에도 자민당 정권의 독주를 예상하게 한다. 아베 수상의 재집권

이후 형성된 이러한 자민당 일당우위시스템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된 것일까?

〈표 3〉 최근 국정선거 정당별 비례대표선거 득표율 및 의석수 비교

중의원선거 결과								참의원선거 결과									
구분	자민	공명	민주	유신	공산	입현	희망	정원	구분	자민	공명	민주	유신	공산	민진	정원	
2009총선	26.7	11.4	42.4		7.0			480	2010참의원	24.0	13.0	31.5		6.1		121	
의석수	119	21	308		9				의석수	51	9	44		3			
점유율	24.8	4.4	64.2		1.8				점유율	42.1	7.4	36.4		2.4			
2012총선	27.6	11.8	16.0	20.3	6.1			480	2013참의원	34.6	14.2	13.4	11.9	9.6		121	
의석수	294	31	57	54	8				의석수	65	11	17	8	8			
점유율	61.2	6.4	11.8	11.2	1.6				점유율	53.7	9.0	14.0	6.6	6.6			
2014총선	33.1	13.7	18.3	15.7	11.3			475	2016참의원	35.9	13.5		9.2	10.7	25.1	121	
의석수	291	35	73	41	21				의석수	55	14		7	6	32		
점유율	61.2	7.3	15.3	8.6	4.4				점유율	45.4	11.5		5.7	4.9	26.4		
2017총선	33.2	12.5		6.0	7.9	19.8	17.3	465									
의석수	284	29		11	12	54	50										
점유율	61.0	6.2		2.3	2.5	11.6	10.7										

\* 2014년과 2017년 자민당 당선자 수에는 선거 직후 추가 입당한 1명과 3명의 무소속의원들을 포함시킴.

\* 유신회는 2012년-2013년 日本維新の会, 2014년 維新の党, 2016 大阪維新の会, 2017년 日本維新の会로 변화함.

먼저 구 민주당 정권이 대패한 2012년 제46회 총선결과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평가 내용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득표율은 27.6%였지만, 소선거구에서 압승하면서 의석점유율은 61%를 초과했다. 당시 투표자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은 경기, 고용, 사회보장, 연금문제, 외교 등의 ‘정책’과 ‘정권담당능력’이었다.<sup>18)</sup> 당시의 구 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참의원을 지배하면서 주요 입법과 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다. 여기에 민주당 내 세력들이 분열하면서 정책혼선이 빈번했다. 민주당 내각의 대외정책 또한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18) 河野啓・小林利行, 「再び政権交代を選択した有権者の意識」『衆議選後の政治意識・2013』調査から, 『放送研究と問題』, JULY 2013, 40~41쪽.

미일동맹 사이에서 혼미를 거듭했다. 그 결과 유권자 다수는 민주당 내각의 '정권담당능력'에 대해 강한 회의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민주당지지율은 급락했다. 비례대표선거에서 구 민주당의 득표율은 2009년 총선에서 42.4%였지만, 2012년 총선에서는 16.0%로 급락했다. 그 이후 구 민주당의 평소 정당지지율은 10% 미만으로 낮게 지속되었다.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정권담당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재집권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에 대해서는 인재, 리더십, 외교능력, 안보정책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높게 평가했다.<sup>19)</sup>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두 차례씩 실시된 총선과 참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한 득표율은 33%~35%의 사이에서 유지되었다. 이러한 자민당득표율의 안정성은 아베 내각이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 내각의 정국운영능력일 것이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과 정권담당능력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이 어느 정도 실증될 수 있는지를 요미우리신문이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는 정당지지율, 내각지지율의 조사와 함께 내각지지 사유로 6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응답자들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조사에서는 아베 수상의 재집권시기에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각지지사유 6가지 항목에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항목 1개를 추가하여, 아베 내각의 지지율, 자민당지지율과 함께 9가지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이 상관분석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자민당지지율은 7개의 지지사유들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19) 河野·小林(2013), 42~43·48쪽.



이를 통해 내각지지율의 변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하는 지지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표 4〉 아베 내각의 지지사유 분석<sup>20)</sup>

	내각 지지율	자민당 지지율	내각지지 사유 7가지						
			자민 내각	정책 기대	리더십	신뢰	각료	우위 내각	경제 정책
내각지지율	1	.595**	-.555**	.582**	-.265	-.035	-.018	.223	.856**
자민당지지율	.595**	1	-.067	.105	.153	.154	-.277	-.147	.320*
자민내각	-.555**	-.067	1	-.426**	-.008	-.074	.062	-.479**	-.712**
정책기대	.582**	.105	-.426**	1	-.591**	-.188	.406**	-.092	.655**
리더십	-.265	.153	-.008	-.591**	1	.230	-.443**	-.270	-.330*
신뢰	-.035	.154	-.074	-.188	.230	1	-.349*	-.287	-.199
각료	-.018	-.277	.062	.406**	-.443**	-.349*	1	-.102	.049
우위내각	.223	-.147	-.479**	-.092	-.270	-.287	-.102	1	.391**
경제정책	.856**	.320*	-.712**	.655**	-.330*	-.199	.049	.391**	1
N	4721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또한 자민당지지율도 분석항목에 추가했다. 따라서 본 상관분석의 대상으로 9가지 변수를 설정했다.

20) 요미우리신문이 매일 실시하는 ‘電話全国世論調査’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조사에서는 내각의 지지사유로서, ①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정책기대), ②수상에 지도력이 있다(리더십), ③수상을 신뢰할 수 있다(신뢰), ④각료구성이 좋다(각료), ⑤자민당중심의 정권이기 때문이다(자민내각), ⑥지금까지의 내각보다 좋다(우위내각), ⑦기타, ⑧무응답 등의 8가지 선택항목이 제시된다. 응답자는 이 가운데 1개를 선택한다. 이 분석에서는 이 항목들 가운데 ①에서 ⑥까지 6개를 선택하였고, 여기에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 아닌 지를 질의하는 조사항목 1개(경제정책)를 추가하여 합계 7개를 내각지지사유로 설정했다. <http://www.yomiuri.co.jp/feature/opinion/koumoku/?from=ychnav2> (검색일: 2017년 10월 25일).

21)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는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까지 매일 조사된 자료이다. 그렇지만 내각지지사유와 경제정책평가 항목이 동시에 조사되지 않았던 2013년 4월, 7월, 2014년 1월, 9월, 2015년 8-9월, 2017년 3월, 5-8월은 제외해, 총 47회 조사 데이터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를 보면, 내각지지율은 지지사유 7개 항목 가운데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경제정책)’와 ‘①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정책기대)’는 변수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민당지지율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항목하고만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은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과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실증된다. 아베 수상이 모리토모학원문제(森友学園問題)와 가케가쿠엔학원문제(加計学園問題)의 스캔들을 겪으면서도 내각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해온 아베노믹스를 포함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해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세 증세분의 사용을 보육지원 및 교육무상화의 재원으로 전용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였다(2017년 9월 조사). 또한 헌법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35%, 무응답 17%였다(2017년 10월 조사).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44%, ‘끝까지 대화로 해결한다’ 37%, ‘군사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14%, ‘잘모르겠다’ 5%로 나타났고, 방위성이 결정한 지상형 미사일요격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61%, 반대 26%로 나타나(이상 2017년 8월 조사), 아베 내각의 강경한 군사안보정책에도 동조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이처럼 아베 내각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의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여론조사 자료에서는 자민당이나 아베 내각의 정권담당능력을 직접적으로 질의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분석

22) <https://www.nikkei-r.co.jp/pollsurvey/results/>(2017년 10월 25일 검색)

은 아쉽게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NHK가 이번 총선출구조사에서 실시한 ‘아베 수상의 정권운영에 대한 평가’의 조사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6%였고 부정적인 평가는 44%였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면, 아베 수상의 정권담당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수준은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들어서 모리토모학원문제(森友学園問題)와 가케가쿠엔학원문제(加計学園問題)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내각유지의 위협선인 30% 이하로는 하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과 자민당의 정권담당능력에 대한 다수 유권자들의 신뢰수준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민당지지자나 보수층 유권자들은 아베 수상의 안정적인 정권운영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아베 수상의 재집권 이후 반 자민 성향의 야당지지율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 구 민주당이 2016년 3월 일부 야당의원들을 포섭하여 민진당으로 개명하여 지지율의 상승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진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삼분열하면서 해체되었다. 이러한 민진당의 좌절과 해체는 아베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고하고 안정된 지지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제1야당의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아베 내각 내지 자민당의 정책능력과 정권담당능력에 대한 견고한 지지는, 과거의 자민당과 자민당내각에서는 찾기 어렵다. 여기에 현재의 아베 내각은 중의원의 압도적 다수와 참의원의 지배를 배경으로 신속한 정책추진능력과 안정적인 정권운영능력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민당의 모습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보수 자민당이 새롭게 진화한 모습인 것 같다. 현재의 자민당 정권은 과거의 ‘파벌에 의해 분점되는 정권’이나 ‘관료가 지배하는 정권’이 아니다. 또한 ‘이익유도정권’이나 ‘결정하지 못하는 정권’도 아니다. 유권자들의 정치불

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무당파층의 비율도 아직은 높지만, 자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 V. 무당파층의 정당선택 변화

일본의 무당파층비율은 앞서 서술했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2013년 참의원선거부터 무당파층의 정당지지 패턴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2000년대 들어 무당파층의 정당선택의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했다. 이를 위해 내각지지율, 자민당지지율, 민주(민진)당지지율, 무당파비율 4가지 항목의 연동성을 상관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앞서 이용한 NHK정치의식윌레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그런데 위의 4가지 항목의 연동성은 총선과 참의원선거에서 무당파 투표자가 비례대표선거에서 자민당과 구 민주(민진)당을 각각 선택한 사례를 일견 보았을 때, 무당파층의 정당선택에는 다음의 3개의 시기별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구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성장해 집권에 성공하기까지의 시기(2000년 1월~2009년 9월, 117개월분 자료), 구 민주당의 집권시기(2009년 10월~2012년 12월, 39개월분 자료), 아베 수상의 재집권기(2013년 1월~2017년 10월, 58개월분 자료)의 3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3시기별로 구분해 각 시기별 상관분석을 실시해 4개의 항목 간의 연동성을 <그림 2>처럼 비교했다.

먼저 구 민주당의 성장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무당파층비율은 자민당(-.570)과 구 민주당 지지율(-.830)과 반비례하여 밀접하게 연동하지만, 내각지지율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무당파층비율은 자민당보다는 구 민주당의 지지율과 더욱 크게 연동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둘째로 구 민주당의 집권기를 보면, 무당파층비율은(구 민주당)내

〈그림 2〉 2000년대 무당파층의 정당선택 성향의 변화, NHK 정치의식윌레조사

구 민주당 성장기 <sup>1</sup>					구 민주당 집권기 <sup>2</sup>					아베수상 재집권기 <sup>3</sup>				
	내각	자민	민주	무당파		내각	자민	민주	무당파		내각	자민	민주	무당파
내각	1	.538**	-.437**	.137	내각	1	-.623**	.886**	-.653**	내각	1	.799**	-.296*	-.319*
자민	.538**	1	.098	-.570**	자민	-.623**	1	-.585**	.169	자민	.799**	1	-.069	-.492**
민주	-.437**	.098	1	-.830**	민주	.886**	-.585**	1	-.847**	민주	-.296*	-.069	1	-.534**
무당파	.137	-.570**	-.830**	1	무당파	-.653**	.169	-.847**	1	무당파	-.319*	-.492**	-.534**	1
N	117				N	39				N	58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각지지율 및 구 민주당의 지지율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했고, 자민당지지율과는 무관했다. 즉 이 시기 (민주당)내각지지율과 민주당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는데, 구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구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무당파층으로 이탈해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로 아베 수상의 재집권기가 되면, 무당파층비율은 자민당지지율, 구 민주(민진)당 지지율과 반비례적으로 밀접하게 연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당파층비율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도 반비례적으로 연동했지만 유의수준 5% 수준에서의 연동이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무당파층비율은 자민당지지율(-.492)보다는 구 민주당 지지율(-.534)과 보다 더 밀접하게 연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시기별 무당파층의 정당선택에 변화가 있다는 분석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상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구 민주당 성장기에는 무당파투표자들이 구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지했고, 구 민주당 집권기에는 무당파투표자들이 구 민주당 지지에서 대대적으로 이탈했으나 자민당지지는 바로 선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재집권기 무당파층은 구 민주(민진)당 지지와 자민당지지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앞선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의 국정선거에서도 확인되는 무당파층의 자민-구

민주당 선택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 VI. 결론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하면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총선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던 주요 결정요인들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변화요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높은 지지율에는 아베 내각의 높은 정책 능력과 정권운영능력에 대한 투표자들의 높은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실시된 총선에 국한했을 때 내각의 정책능력이 총선 결과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 수상 개인의 스캔들이 있어 내각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자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1야당의 분열 요인을 고려해도 이례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정책능력과 정권담당능력에 대한 투표자들의 높은 평가는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아베 수상의 재집권기에 내각의 정책능력과 정권운영능력이 새롭게 진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아베 내각에서 과거 자민당 정권에게 붙여졌던 부정적인 평가들이 상당히 희석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일본 투표자들의 연령대별 자민당지지율의 양상을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민당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sup>23)</sup> 여기에 반 자민성향의 야당들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것이 지속된다면 자민당의 지지기반은 점점 공고해지고 반 자민 성향의 야당의 지지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된

23) NHK출구조사결과를 보면, 18-19세 47%, 20대 50%, 30대 42%, 40대 36%, 50대 34%, 60대 32%, 70대 이상 38%로 나타난다. [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 (검색일: 2017년 10월 25일).

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일당우위의 정당시스템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무당파층의 정당선택 성향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2009년 총선까지만 해도 무당파 투표자들은 반 자민 성향이 강했다. 그렇지만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이러한 무당파층의 반 자민 성향은 크게 약화되었다. 무당파층의 반 자민 성향에 기댄 야당의 막연한 득표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

셋째,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은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신뢰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아베 수상은 재집권한 직후부터 ‘아베노믹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던 디플레이션을 해결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상승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임금인상정책도 일본의 내각정책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중의원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배경으로, 고이즈미 정권 이후 ‘결정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책임한 정국운영에서 탈피하는 데도 성공했다.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이외의 주요 정책들도 유권자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정책능력은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11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12월 3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三宅一郎, 『政党支持の構造』, 木鐸社, 1998.
- 蒲島邦夫, 『政権交代と有権者の態度変化』, 木鐸社, 1998.
- 読売新聞東京本社世論調査部 編著, 『二大政党時代のあけぼの—平成の政治と選挙』, 木鐸社, 2004.
- 河野啓・小林利行, 「再び政権交代を選択した有権者の意識—衆議選後の政治意識・2013」調査から, 『放送研究と問題』, JULY 2013.
- 河野啓・小林利行, 「自民大勝の背景と有権者の受け止め方—参院選後の政治意識・2013」調査から, 『放送研究と問題』, JANUARY 2014.
- 河野啓・荒牧央, 「参院選における有権者の意識—参院選後の政治意識・2016」調査から(1), 『放送研究と問題』, February 2017.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平成24年12月16日執行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 裁判官国民審査結果調」, 2012.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平成26年12月14日執行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 裁判官国民審査結果調」, 2014.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平成2年10月22日執行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 裁判官国民審査結果調」, 2017.
- NHK政治意識月例調査: <http://www.nhk.or.jp/bunken/index.html>
- NHK출구조사, [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https://www3.nhk.or.jp/news/web_tokushu/2017_1024.html)
- 読売新聞電話世論調査, <http://www.yomiuri.co.jp/feature/opinion/koumoku/?from=ycnav2>
- 日経定例電話世論調査, <https://www.nikkei-r.co.jp/pollsurvey/results/>
- 時事世論調査, <https://www.jiji.com/jc/2017syu>



## Abstract

# The 48th Japanese General Election and the Changes of Political Parties in Japan

Rhee-Beom Lee

In the 48th Japan general elections in 2017,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on a landslide victory. The main reasons were that the anti-LDP opposition parties split up, and voters praised the Abe administration's policy capability and the ability of the LDP to manage Administrative capacity of government. With the approval ratings of the Abe cabinet and the LDP falling before the election,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number of LDP seats could drop. But it didn't happen because many voters supported the key policies of the Abe cabinet such as Abenomics. Since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regained power in 2012, the LDP's policy capability and its ability to manage administrative capacity of government have greatly enlarged. And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LDP are no longer true. That is why the LDP's popularity has been maintained at its late 30s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popularity of opposition parties is below 10 percent. Also, anti-the LDP voters'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opposition parties has gone beyond further expectations. The LDP's one-party system is expected to last for quite a while.

## Key words

Japanese general electi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Abenomics, Japanese party system, Japanese politics